뭐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新 불교사자성어

㊵ 오매일여(寤寐一如)

오매일여(寤寐一如). '자나 깨나 한결같다(寤寐一如)' 는 뜻이다. 일반적인 뜻은 그렇지만, 선에서는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한결같아야 한다.' 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매일여(寤寐一如)는 근래 우리나라 선원에서 새롭게 대두된 말이다. '무', '이뭣고' 등 화두를 들어서(참구하여) 화두삼매의 경지가 된 상태, 삼매가 된 상태를 말한다. 오(寤)는 깨어 있을 때를 가리키고, 매(寐)는 잠들어 있을 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일여(一如)는 '오로지', '한결 같다' 는 뜻으로 삼매(三昧)를 가리킨다.

삼매는 '집중', '몰입' 으로서 정신 통일을 말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영어의 '올인(all in)' 과 똑같은 뜻이라고 보면 된다. 일념으로 화두에 올인, 집중해서 일체 잡념이나 다른 생각(망상)이 없는 상태,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상태(삼매)가 되어야만 화두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예로 부모는 자식이 매우 아프거나 군에 입대하면 자나 깨나 오로지 자식만 생각한다. 오매일여. 아버지는 남자라서 조금 덜하지만 어머니는 여성이고 게다가 모성애가 작용해서 한층 더 가슴앓이를 한다. 군에 가서 잘 있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등등. 자나 깨나 갖가지로 상상을 하면서 자식 걱정에 몰입한다. 딸이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거나 시집을 가도 걱정은 마찬가지이다. 오매불망 자식 걱정, 자식 생각. 그것이 곧 선에서 말하는 오매일여이다. '화두 오매일여' 는 아니지만 '자식 걱정 오매일여' 라고 할 수 있다.

오매일여는 삼매로서 '자나 깨나 오직 한결같이 화두에 몰입, 전념(專念)해야 한다' 는 뜻이다. 잡념, 딴 생각, 엉뚱한 생각은 일절 하지 말고 오직 화두만 생각하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갖가지 번뇌 망상이 물러가고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져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화두만이 아니고 사업이나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이고, 그 밖에 다른 일이나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올인(all in), 전념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기술도 전념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되고 자장면이나 칼국수, 곰탕으로 유명하다는 집도 가보면 보통 10년에서 20년 동안 그것만 만들었다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애인을 그리워하듯이, 또는 주야로 사업이나 돈을 버는데 매달리듯이 화두를 참구한다면 아마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대부분 좌선을 한다고 앉아서 화두를 들고 10분 정도가 지나면 경쟁하듯 졸거나(昏沈) 잡념에 빠져있거나(掉擧),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無記) 앉아 있기 때문이다.

오매일여(寤寐一如)의 어원은 유가의 경서인 〈시경(詩經)〉 관저장에 나오는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 이라는 말에 기인한다. 즉 남녀가 서로 오매불망 잊지 못하고 한결 같이 그리워한다는 뜻인데, 앞의 '한결같다(一如)' 는 말이나 여기 '잊지 못한다(不忘)' 는 말이나 용어는 달라도 그 뜻은 모두 똑같다.

오매일여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의미를 과잉으로 부여하여 '무', '이뭣고' 등 화두를 들고(참구) 있는 상태가 깊은 숙면 속에서도 생생하게 화두를 들어야만(화두 참구) 한다고 한다. 그것이 오매일여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화두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하여, 또는 화두 참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오류라고 판단된다.

'오매일여' 의 정의는 분별심을 버리고 일심으로 화두를 참구해야만 깨닫게 된다는 상징적인 말이다. 자나 깨나 일심으로 참구하라는 상징적인 말인데, 너무 신비화시켜서 그것을 사실로 오판하고 있다. 너무 더워서 죽을 뻔했다는 말을 사실로 이해한다면 '어린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는 속담과 같다. 동의어로는 '오매항일(寤寐恒一)', '오매상일(寤寐常一)', '몽교일여(夢覺一如)' 등이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보수가 방장실로 돌아간 까닭은?



격절록 강설

㊵ 보수개당 2

[評唱 2]

三聖云 "恁麼為人 瞎却鎭州一城人眼去在" 此處又作麼生 禪和家 也須子細試去體究看. 莫是保壽不會便歸方丈麼. 是何道理. 看他悟底人. 爪牙迥自不同. 後來僧問 "萬里無片雲時如何" 壽云 "青天也" 須喫棒.

삼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을 위한다면 (다만 이 스님의 눈만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주성 사람들 모두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고 했는데, 여기엔 또 무엇이 있는가? 참선하는 스님들(禪和家)이라면 모름지기 시험 삼아 자세히 몸소 참구해보라!

보수가 몰라서 바로 방장실로 돌아간 것인가?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저 깨달은 사람(悟底人)을 보라! 학인을 지도하는 방법(爪牙)이 (일반적인 방법과는) 아득히 멀어져서 정말로 같지 않은 것이다.

뒤에 어떤 스님이 물었다.

"만 리에 한 조각의 구름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수가 말했다.

"맑은 하늘(青天)!"

(그렇게 하지 말고) 모름지기 한 방(棒)을 쳤어야 했다.

臨濟遷化 三聖作院生 濟云 "吾滅後不得滅却吾正法眼藏" 聖云 "誰敢滅却和尚正法藏眼" 濟云 "忽有人問汝 作麼生祇對" 三聖便喝. 濟云 "誰知我正法眼藏 到這瞎驢邊滅却"

임제가 천화할 때, 삼성이 제자(院生)로 있었는데, 임제가 말했다.

"내가 입멸한 뒤 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멸각해서는 안 된다."

삼성이 말했다.

"누가 감히 화상의 정법안장을 멸각하겠습니까?"

임제가 말했다.

"홀연히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삼성이 바로 "할(喝)!" 했다.

(그러자) 임제가 말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 먼 나귀에 이르러 멸각하게 될 줄을!"

後僧擧此 語請益風穴. 穴云 "密付將終 全主即滅" 復云 "只如三聖一喝又作麼生" 穴云 "可謂入室之真子 不同門外之游人 臨濟一宗 風穴親承 不同小小" 後來南禪師道 "百丈耳聾猶自可 三聖瞎驢愁殺人" 看他從上宗風 豈是規模聞聽得來. 須是桶底子脫相似 大用現前 始有如此作略.

뒤에 어떤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 풍혈(風穴, 풍혈연소 896~973)에게 청익(請益)하자, 풍혈이 말했다.

"은밀하게 부촉하고 돌아가시려 했으니, 완전히 주인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삼성의 일 할(一喝)은 또 무엇인가?"

풍혈이 말했다.

"가위 진정한 입실제자라면 문 밖에서 노니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은 법입니다. 임제의 일종(臨濟一宗)을 풍혈이 친히 이은 것은 사소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뒤에 남 선사(南禪師, 황룡혜남)가 말했다.

"백장이 귀먹은 것은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눈 먼 삼성은 몹시 근심스럽게 한다."

저 예로부터 내려오는 종풍을 보라! 이것이 어찌 무슨 본보기 같은 것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모름지기 통 밑이 쑥 빠진 것과 같이 되어 대용이 눈앞에 드러나야(大用現前) 비로소 이와 같은 작략(作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㊵ 이해의 길 20

부파불교가 소승인 이유

우리는 불교를 소승과 대승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에 익숙해있다. 그래서 태국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등의 남방불교를 소승이라 부르고 중국이나 한국, 일본, 티베트 등의 북방불교를 대승이라 한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면서 붓다의 가르침마저 소승이라 여기는 예기치 못한 오류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본래 소승이라는 말은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이 부파불교의 행태를 보고 붙인 용어다. 소승은 본래 '히나야나(Hinayana)' 란 말로서 '작은 배', 혹은 '열등한 가르침' 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승이란 말을 남방에서는 아주 싫어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부파불교뿐만 아니라 근본불교까지 포함해서 소승으로 인식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붓다의 근본 교설마저 열등한 가르침으로 취급하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자들 스스로 붓다의 교설을 폄하하는 요즘말로 '웃픈'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은 왜 부파불교를 소승이라고 비판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부파불교가 지니고 있는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파불교는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지적 재능을 갖춘 출가자 중심의 불교였다. 그들이 이론을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불교의 실천성은 점차로 약화되었다. 종교의 생명력은 누가 뭐라 해도 실천에 있다. 붓다가 평생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도 자신이 세운 이론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었다. 그런데 부파불교는 생명력 넘치는 실천 중심의 불교를 이론을 중시하는 관념적인 불교로 변질시켰다. 불교가 모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식을 갖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것이다.

부파불교는 지나치게 학문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문자를 모르는 대중들이 붓다의 가르침에 접근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다. 깨침과 자비는 불교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두 기둥이다. 불교에서 깨침을 중시하는 이유도 이를 통해 진정한 자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파불교는 자비라는 대사회적 실천에 무관심했다. 비록 불교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지나치게 이론에 집착한 결과 중생들을 향한 자비의 기둥이 무너지고 말았다. 불교라는 거대한 건물 역시 무사할 수 없었다.

무너진 불교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붓다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붓다가 걸었던 길을 손에 손 잡고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가는 일이었다. 그런데 부파불교는 대중들의 손을 뿌리치고 홀로 그 길을 가려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열반행 버스를 외면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고급 승용차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들만의 길을 선택했던 부파불교는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그들의 한계를 지적한 사람들은 부파불교를 향해 '소승(小乘)' 이라고 외쳤다. 여기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작은 배, 작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비판의식이 담겨있다. 그리고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승이라 불렀다. 대승이란 범어로 '마하야나(Mahayana)' 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열반의 땅을 향해 함께 타고 가는 '커다란 배', '훌륭한 가르침' 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승, 대승이란 구분이 부파불교에게는 아픈 상처다.

요즘은 '소승' 이란 용어를 잘 쓰지 않는다. 이 말 자체에 대승적 편견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장로불교(長老佛敎)나 상좌불교(上座佛敎), 혹은 그들의 언어를 살려서 '테라(Thera)' 불교라고 부른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 당시 부파불교의 한계를 지적한 대승불교의 입장은 정당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부파의 전통을 계승한 그들의 문화 전체를 소승이라 폄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대승이라 자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고, 보살행을 소홀히 하는 소승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 친환경적
• 단열효과 탁월
• 구조변경 용이
• 시공비 대폭절감
• 습기에 강함
• 내구성 우수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